

‘장애인 탁구 메카’ 빛고을 태극전사들 도쿄서 빛나다

연대와 희망, 그리고 도전...2020 도쿄 패럴림픽 폐막

서수연·김영건·김정길·박진철·남기원 ‘눈부신 투혼’
광주시청 탁구팀, 銀5·銅2 수확...‘효자종목’ 선전 견인



도쿄올림픽은 지난 5일 폐회식을 끝으로 파리에의 재회를 기약했다.

22개 정식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1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4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 막판 뒷심을 보여줬지만, 애초 목표였던 종합 순위 20위 이내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총 메달 개수로 매진 순위가 15위(24개)인 점은 위안거리다.

특히 한국 탁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따내며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 중심에는 광주시청 소속 선수들이 있었다. 광주시청 선수들은 대회 출전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2011년 창단한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은 장애인스포츠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출범한 실업팀이다. 이를 계기로 선수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자연스럽게 유망선수들이 광주로 모여드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이러한 인프라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소속 선수 6명 전원이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특히 김영건(38·세계 랭킹 2위), 서수연(35·3위), 남기원(56·3위)은 월드 클래스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애초 목표로 잡은 전체 금메달 4개 가운데 2개를 광주시청 선수들에게 기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이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을 견인했다. 왼쪽부터 서수연, 김영건, 김정길, 박진철, 남기원. /연합뉴스

‘한국 장애인 탁구 스타’ 서수연은 첫 은메달을 대한민국 선수단에 선사했다.

서수연은 여자단식(스포츠등급 1-2)과 여자 단체 (스포츠등급 TT1-3)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수연은 단식에서 2016 리우 대회에서 만났던 ‘디펜딩 챔피언’ 류정(33·중국)과의 리턴매치에서 아쉽게 패하며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선수가 패럴림픽 탁구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건 서수연이 처음이다. 또 서수연은 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 윤지유(2

1·성남시청)와 함께 여자 탁구 단체 첫 은메달을 대한민국 선수단에 선사했다.

한국 남자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터줏대감’ 김영건도 남자 단식(스포츠등급 TT4)과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에서 각각 은메달을 기록했다.

김영건은 단식 결승에서 ‘리우 디펜딩 챔피언’ 압둘라 외트윙크(터키)에게 역전패했다.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의 개인전 단식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영건은 김정길,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보냈다.

박진철은 개인 단식(TT2)에서 동메달, 단체전(스포츠등급TT1-2)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기원은 단식(스포츠등급 TT1)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이 수확한 메달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탁구 선수단이 일궈낸 은메달 6개 가운데 5개가 광주시청 선수들의 몫이다.

이밖에도 광주 소속 태극전사인 탁

구 김성욱(55), 양궁의 김옥금(62), 김란숙(55), 조장문(56), 사격의 이지석(49·이상 광주시청), 조정의 김세정(45·광주시장애인체육회)은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장애를 넘어선 투혼과 도전정신으로 무한감동을 선사했다.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빛고을 선수들은 이제 2020 도쿄를 뒤로 하고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약한다.

한편, 도쿄 패럴림픽 광주선수단은 오는 13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벤투호, 오늘 오후 8시 WC 최종에선 2차전 레바논전

극단적인 수비축구 깨고 “승점 3점 따내겠다”
맞춤형 전략...적극적인 공격 플레이로 승부

이라크와 첫 경기 출전에 따른 비판 속에 레바논전을 준비한 파울로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더 적극적이고, 더 빠른 공격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을 하루 앞둔 6일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레바논이 한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들고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난 1차전에서 한국은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은 수비 축구를 펼친 이라크를 상대로도 한 골을 못 넣고 0-0 무승부에 그쳤다.

당연히 팬들의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다.

벤투 감독은 수비축구를 공략하기 위해 변화를 줄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선수 여러 명 바꾸고 포메이션 바꾸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른 공격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승점 3점을 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격 쪽에서 이라크전보다 잘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벤투호와 레바논의 경기는 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린다.

다음은 벤투 감독과의 일문일답.

▲ 레바논 역시 이라크처럼 극단적인 수비축구를 구사할 전망이다. 레바논전에서 어떤 변화를 구상하는가.

- 우리의 플레이를 발전시키고, 다음 상대에 대한 최적의 전략이 뭔가 고민해야 한다. 우리 플레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승점 3점 따도록 노력하겠다. 공격 쪽에서 이라크전보다 잘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극단적 수비축구를 공략하기 위해 변화를 줄 계획이 있다.

- 선수 여러 명 바꾸고 포메이션 바꾸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한다. 더 적극적이고, 더 빠른 공격을 펼치겠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침착하게 플레이해서 우리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남태평양 부상으로 빠졌다. 어떻게 중원을 구성하려고 하나.

- 아직 경기 전까지 결정할 시간이 남아있다. 남태평양과 같은 포지션에 충분하게 선수가 있어서 대체 발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아랍에미리트(UAE)와 치른 레바논의 1차전 경기 분석은 끝났다. 지난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을 하루 앞둔 6일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 감독이 교체되면 전술이 바뀐다. 레바논은 UAE전에서 지난 6월 우리와 경기했을 때(2차 예선)와 다른 전술을 썼다. 지난번 우리를 상대로 썼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나올 수도 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 레바논은 좋은 수비조직력을 가진 팀이다. 앞선에서부터 압박하는 팀이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콤팩트해졌다. 우리는 공격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라크전 앞두고 유럽파 선수들 컨디션 좋다고 했는데, 막상 경기장에서는 무거워 보였다. 현재 선수들 몸 상태는 어떤가.

- 일부는 지난달 30일에, 도착했고 나머지 4명은 31일에 입국해 이틀 뒤 이라크전을 치렀다. 이들 4명이 좀 더 피곤한 상태다. 이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6일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캔틀레이 ‘1천500만弗 사나이’

세계랭킹 1위 윤 람 1타차 따돌리고 PGA 플레이오프 우승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1천500만 달러(약 175억원)의 보너스를 손에 넣었다.

캔틀레이는 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21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우승한 캔틀레이는 2020-2021시즌 PGA투어 왕좌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윤 람(스페인)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린 캔틀레이는 플레이오프 우승 보너스 1천500만 달러를 받았다.

시즌 4승째이자 PGA투어 통산 6승

째. 플레이오프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2언더파 68타를 친 람은 이 대회를 시작할 때 캔틀레이와 격차 3타를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

미국 교포 케빈 나(한국이름 나상욱)는 3언더파 67타를 때려 3위(16언더파 266타)를 차지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4위(15언더파 269타)에 올랐고,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켄타 쇼펠레(미국)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공동 5위(14언더파 269타)의 성과를 냈다.

임성재(23)는 2타를 줄여 공동 20위(4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는 49만7천500만 달러(약 5억7천498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다. /연합뉴스

‘꼴찌’ FC서울 박진섭 감독, 자진 사퇴

프로축구 K리그1 ‘최하위’ FC서울의 박진섭(44)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FC서울 구단은 6일 “박진섭 감독이 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후임으로 안익수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서울 지휘봉을 잡았던 박 감독은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지휘봉을 반납했다. 박 감독과 함께 강명원 단장으로 자진해서 사임했다.

지난해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을 이끌 어왔던 FC서울은 박 감독은 새로운 사

령탑으로 영입해 3년 계약을 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이번 시즌 부진이 이어지면서 27라운드까지 최하위의 부진에 허덕였다.

결국 FC서울은 분위기 전환의 마지막 카드로 사령탑과 함께 단장 교체를 꺼내 들었다.

박 감독은 전날 전북 현대와 홈 경기에서 3-4로 패하고 난 뒤 경기장 앞에서 팬들과 만나 팀 성적 부진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것이 팬들과 마지막 만남이 됐다.

FC서울은 후임에 안익수(56) 선문대 감독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PGA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 3번홀에서 티샷하는 임성재. /AP·연합뉴스

임성재, PGA투어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

34개 대회서 ‘498개’...21년 묵은 기록 깨고 새 역사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역사를 새로 썼다.

임성재는 6일 끝난 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이자 2020-2021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뽑아냈다.

임성재는 이로써 이번 시즌에 498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PGA투어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00년 스티브 플레시

(미국)의 493개. 21년 묵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3라운드까지 49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플레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임성재는 이날 2번 홀(파3)에서 6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일찌감치 새 기록을 수립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시즌 최다 버디 1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3년 연속 ‘버디왕’을 차지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무려 34차례 대회에 출전했고 128라운드를 돌았다. 2000년에 123라운드를 치렀던 플레시보다 5라운드다 많다.

임성재는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은) 어찌까지 몰랐는데 어제 TV 중계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그 기록을 깨보자고 생각했는데, 2번 홀에 버디를 하면서 기록이 깨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 버디 기록은 내가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